

#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영화

한 용 택  
(건국대학교)

## 1. 들어가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달하는 현금의 현상과 맞물려,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의 다문화현실에 논의가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당장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겠지만, 다문화현실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러워 보이며 필요하기도 하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한국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개연성은 매우 높는데 반해 그에 대한 유무형의 준비는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의 지향점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무를 수 없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렇지만 준거할 수 있는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기에 낯선, 그리고 정체성, 문화, 민족, 인종, 가치관 등 복잡한 여러 문제가 얽혀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 관련 논의는 교육 문제를 빼고 생각할 수 없다. 사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문화 전담 교사가 지정되거나, 다문화교육 시범학교로 운영되는 초·중등학교가 있으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 차원의 교육도 여러 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오컨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

며 부분적으로 이미 시행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다. 다문화교육은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정체성과 가치관의 문제처럼 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 기존의 학과나 학문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심각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영화, 특히 일반적인 상업영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sup>1)</sup> 학생들에게 친숙한 현대의 대표적인 서사텍스트로서 영화는 대상을 객관화하여 정서적인 접근과 사변적인 이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한편, 하나의 영상매체로서 영화는 기존의 문자텍스트가 갖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의 이해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sup>

우리는 이 글에서 영화를 활용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이 되는 영화는 프랑스와 독일의 일반 상업영화 세 편이다.

- 
- 1) 굳이 다문화교육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활용한 수업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논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관중, 「영화를 활용한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수업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06, pp.147-166, 서연주, 「한국 문화에 나타난 다문화 인식 양상 고찰, 인권영화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7집, 2009, pp.213-234, 홍기천, 남은아, 「영화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5학년의 실제적인 교과수업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8호, 2006, pp.68-77, 조현일, 「읽기 텍스트로서의 영화와 영화 읽기 교육」, 『독서연구』 제18호, 2007, pp.255-285, 이경순, 「다른 세계들, 다른 텍스트들: 영어권 문화강의에서의 영화의 활용」,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호, 2002, pp.61-92, 노시훈, 「영화를 통한 프랑스 문학·문화 교육」, 『프랑스학연구』 제33집, 2005, pp.351-371, 정영근, 「디지털문화 시대의 영화와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제6권 제2호, 2003, pp.205-224, 김보림, 「역사수업에서 영화를 통한 일본사·영화 카게무사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7, pp.1-16, 이종원, 「기독교 교양과목에서의 영화 활용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5집, 2008, pp.251-276, 박현준, Joseph E. Chamoux, 김상준, 조영호, 「영화와 경영교육 - 영화를 통한 협상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3, pp.568-595 등이 그 예이다.
  - 2) 다문화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할 때의 장점에 대해서는, 김연권, 한용택, 「영상매체를 통한 다문화 수업」, 최충욱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 양서원, 2010, pp.177-179 및 한관중, 위의 책 참조.

초·중·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적절히 활용되도록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장편 영화가 골고루 선택되었으며, 각각의 영화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목표와 내용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기실 영화의 선택은 교육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선택된 세 편의 영화, 미셸 오슬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키리쿠, 키리쿠>, 움니버스 스타일의 영화 <사랑해, 파리> 가운데 <16구>, 파티 야킨 감독의 <천국의 가장자리>는 특정한 목적의 교육을 위해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 일반 상업영화이다.<sup>3)</sup> 유럽의 상업영화를 다문화교육에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장단점이 공존한다. 외국영화는 대부분 타국의 현실을 그림으로써 한국의 현실과 정확하게 부합되지 못하고, 다루어지는 주제 역시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지역적 정서에 근거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의 경우, 스토리라인에 함몰되거나, 역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특히 장르화 된 할리우드 영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유럽의 영화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단점과 장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프랑스와 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의 이민 2세대의 현실을 다룬 영화들은, 비록 당장의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과 관련하여 타산지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sup>4)</sup> 또한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외국의 영화들은 그 자체로 다문화적 감수성, 인권, 세계시민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어서, 결국 가치관과 정체성 교육이 핵심인 다문화교육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의 상업영화라 할지라도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시청 전 준비과정과 시청 후 활동에 대한 충실한 노력과 감독이 수반된다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유용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3) 특정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도 물론 다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시한 인권영화 <시선> 시리즈와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시리즈에 수록된 다문화 관련 영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연권, 한용택, 위의 책, pp.187-197 참조.

4) 외국의 특정 다문화현실을 다룬 영화를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 시청 후 활동은 한국의 현실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책, pp.197-198 참조.

## 2. 애니메이션 <키리쿠, 키리쿠>와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1) 시청 전 준비를 위한 영화의 기본정보와 서술구조

<키리쿠, 키리쿠>는 러닝타임 72분의 프랑스 애니메이션이고, 프랑스어 원제는 <Kirikou et les bêtes sauvages>이다. 미셸 오슬로 Michel Ocelot와 베네딕트 갈뤼프 Bénédicte Galup이 공동 연출한 2005년 작품이며, 한국에서는 ‘전체 시청 가’로 2006년 개봉되었다. 프랑스 개봉 당시 애니메이션으로서 는 드물게 2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이다. 감독인 오슬로는 이 영화와 같은 시리즈인 <키리쿠와 마녀>(1998) 외에 <아취르와 아스마르>(2006), 실루엣 애니메이션 <프린스 앤 프린세스>(1999)를 연출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키리쿠, 키리쿠>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며, 키리쿠는 주인공인 아이의 이름이다.<sup>5)</sup> 영화의 내용은 마녀인 카라바와 키리쿠의 대결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분된다. 첫째 에피소드는 마을 사람들의 농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녀로부터 물을 되찾은<sup>6)</sup> 마을 사람들은 물길을 만들어 농작물의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린다. 하지만 하이에나의 습격으로 밭이 엉망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대책을 논의한다. 어른들은 그 원인을 무조건 카라바의 음모라고 생각하고 쉽게 절망한다. 키리쿠는 관찰과 논리에 근거하여 육식동물인 하이에나가 밭에 먹을 것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국에는 벌떼를 이용해 하이에나를 퇴치한다. 둘째 에피소드는 키리쿠와 마을 주민들이 그릇을 구워 파는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농사를 다시 지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주민들은 또 다시 절망에 빠진다. 이 때 키리쿠가 우연히 진흙으로 그릇을 빚게 되고, 이를 본 주민들이 힘을 합쳐 그릇을 구워 장에 팔러간다. 주민들은 장으

5) 키리쿠의 탄생은 <키리쿠와 마녀>에 그려져 있다. 키리쿠는 스스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뒤, 혼자 땀줄을 끊고 목욕을 하는 인상적인 탄생장면을 보여준다.

6) 마녀로부터 빼앗긴 물을 다시 찾는 과정은 <키리쿠와 마녀>를 구성하는 주된 사건이다.

로 가는 도중에 카라바가 보낸 황소의 등에 짐을 싣지만, 키리쿠는 무거워도 혼자 들겠다고 이를 거부한다. 장에 도착한 황소는 그릇을 모두 깨지만, 남아 있는 키리쿠의 작은 그릇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주문까지 받는 성공을 거둔다. 대가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는 키리쿠의 정직함이 돋보이는 에피소드이다. 셋째 에피소드는 키리쿠가 기린을 타고 아프리카의 여러 곳을 여행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카라바는 병정인형에게 이상한 새 발자국을 만들게 해서 호기심 많은 키리쿠를 마을 밖으로 유인한다. 병정인형에게 포위당한 키리쿠는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기린의 머리 위에 올라가 아프리카 각지를 여행하며, 결국 병정인형들의 손에서 벗어나 마을로 되돌아온다. 동물, 나아가서는 자연이나 환경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는 자연친화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넷째 에피소드는 키리쿠의 엄마를 비롯한 마을의 여자들이 매년 빛는 술을 마시고 독에 중독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카라바의 간계에 의한 것을 밝혀낸 키리쿠는 아이들의 도움을 얻어 인형으로 변장한 뒤, 카라바의 영토에 들어가 해독초를 찾아와 엄마와 마을 여자들을 구한다. 키리쿠의 기지와 용기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적 덕목이다.

에피소드의 구분은 비교적 뚜렷하다. 각각의 에피소드의 시작은 항상 키리쿠의 할아버지인 현자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지막은 아프리카 민속 리듬에 맞추어 마을 사람들이 키리쿠에 대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에피소드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①안정적인 상태(최초의 상태) -> ②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상황의 악화 -> ③되찾은 안정적인 상태(최후의 상태)로의 전이가 그것이다. ①에서 ②로의 변화에는 카라바가 개입되어 있고, ②에서 ③으로의 변화는 키리쿠가 가진 덕목들, 그러니까 관찰력과 추리력, 정직함, 자연친화적 사고와 행동, 용기와 협동 등에 기인한다.

<키리쿠, 키리쿠>의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민담의 구조와 같아 보인다. 하지만 민담의 전형적인 유형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조력자의 존재이다. 전래동화가 된 대부분의 민담에서는 조력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요정인건, 산신령이건, 은혜를 입은 동물인건, 우연히 습득하는 마법의 물건이건 간에, 대부분의 민담의 주인공은 조력

자의 도움을 받는다. 영웅담이나 신화의 주인공과 달리 일반적인 민담의 주인공은 평범하거나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 평범함을 보상해서 시련을 극복해주는 것이 바로 조력자의 역할인 것이다. <키리쿠, 키리쿠>에서는 조력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키리쿠가 성공하게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첫째 에피소드의 벌이나 셋째 에피소드의 기린 그리고 넷째 에피소드에서 키리쿠가 절구를 쓰고 병정인형으로 변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마을의 아이들이 있겠지만, 이들은 조력자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잘 이용하는 키리쿠의 덕목이나 합심하여 협력하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의 극복은 조력자에의 무조건적인 의존이나 이의 개입이 아니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잘 활용하는 키리쿠의 성격과 능력에 따른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키리쿠, 키리쿠>의 주제의 일부는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자연친화적 세계관과 협력이다. 이 주제들은 등장인물인 카라바와 키리쿠의 비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키리쿠와 카라바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다. 키리쿠가 어린 아이이고, 벌거숭이이며, 정직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농경이나 그릇 굽기 등의 정당한 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한다면, 카라바는 어른이고, 치장이 화려하며, 혼자 살고, 약탈과 침략을 일삼고, 명령을 내리고 감시를 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아울러 키리쿠에게 있어 자연과 인간 혹은 타자와 나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지만, 카라바에게는 명령을 수행하는 나무병정들만이 있을 뿐이다. 늘 쓸데없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다고 어른들에게 구박을 받지만 결국 키리쿠의 의견이 관철되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예에서 보듯, 키리쿠가 사는 사회는 평등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통하는 수평적 사회이다. 반면에 카라바의 세계는 논의와 협력이 있을 수 없는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사회이다. 그밖에 카라바의 세계에는 입고 먹고 자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고민도 없지만 또한 음악과 춤도 없다. 어떻게 보면 기계문명이 발달했지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이다. 반면 키리쿠의 부족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짓고 그릇을 구워 팔아야 하지만, 즐거움과 고민을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 2) <키리쿠, 키리쿠>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학습 목표와 내용

<키리쿠, 키리쿠>는 초등교육에 있어서의 다문화교육에 적절한 애니메이션이며,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인권, 문화상대주의 등의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개념의 교육에 적합하다. 애니메이션 <키리쿠, 키리쿠>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시행할 경우 가능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의 경제력 차이가 문화의 우열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 각 문화권의 의식주생활 그리고 음악 등의 예술은 고유한 발전과정을 거쳤고, 결국 문화의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다름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한다.
- 구성원 간에 소통이 원활한 평등한 사회의 장점을 이해한다.
- 아프리카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평등한 시각에서 이해한다.
- 한국과 다른 문화를 가진 타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권인 아프리카의 이야기와 한국의 이야기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이와 같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학년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애니메이션 <키리쿠, 키리쿠>가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는 디즈니를 비롯한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인이 나오지 않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아프리카인들만의 이야기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시청 후 활동 없이 단순한 감상을 나누는 정도라도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기획이 수반된다면 좀 더 심층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키리쿠, 키리쿠>의 시청 후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학습내용의 몇 가지 예이다. 대상 학생의 연령, 주어진 시간, 다른 과목 내용과의 관계 등 수업상황에 맞게 적절히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지도에서 아프리카를 찾아본 뒤, 아프리카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본다. 아프리카의 기후와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옷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본다. 에스키모의 옷과 극지방의 기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옷과 환경의 관계를 정리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원주민자들이 가슴을 가리지 않은 것과 아이들의 벌거벗은 모습에 대해 의견을 말해본다.
- 위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이번에는 집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 <키리쿠, 키리쿠>에 나오는 춤과 음악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 춤과 음악이 나오는지 생각해본다. 아프리카 음악을 구성하는 주된 악기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아프리카에서 춤과 음악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토론한다.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춤과 음악이 있는지 조사한다.
- 카라바와 영토와 키리쿠의 마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발전된 사회인지 토론한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 카라바의 영토에는 왜 음악과 춤이 없는지 생각해본다. 카메라를 연상시키는 감시체계 그리고 나무병정으로 대표되는 사회와 자연과 공존하는 키리쿠의 부족의 차이에 대해서 토론한다.
- 카라바와 키리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한다. 뚜렷이 대비가 되는 항목들을 정리한다. 카라바와 키리쿠, 나아가서는 카라바와 키리쿠의 부족들이 사는 생활방식의 차이를 정리한다. 병정인형과 마을 주민들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한다. 감시와 명령-복종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사회와 토의-협동이 주가 되는 수평적 사회의 차이를 이해하며, 어느 것이 바람직한 사회인지를 토론한다.
-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최초의 상황과 마지막 상황을 정리한다. 최초의 상황이 깨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키리쿠와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한다. 각 에피소드별 상황과 행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을 통해 도출한다. 시련이 극복된 마지막 상황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한다.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위의 내용 이외에도 <키리쿠, 키리쿠>는 아프리카에서 물이 부족한 현실이나 자연의 중요성처럼 환경의 문제에 대한 교육도 가능하다.

### 3. <사랑해, 파리>에 수록된 단편영화 <16구>와 중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1) 시청 전 준비를 위한 영화의 기본정보와 서술구조

<사랑해, 파리>(원제: <Paris, je t'aime>)는 총 상영시간 121분의 미국과 프랑스 공동제작 옴니버스 영화이다. 20명의 세계적인 감독들이 만든 18편의 단편영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과 '파리'가 각각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파리의 20개 구의 한 곳씩을 골라 상영시간 5분 정도의 영화를 각 감독들이 만들었지만, 2편은 최종 편집과정에서 주제의 일관성 때문에 제외되었다. 2006년 칸 영화제에 출품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6년 11월 부산영화제에서 '15세 이상 관람 가'의 등급으로 상영되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엠마뉴엘 벤히비는 뉴욕을 배경으로 또 하나의 옴니버스 영화인 <뉴욕, 아이 러브 유 New York, I love you>를 만들어 2008년 9월 토론토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했다.

<사랑해, 파리>에 수록된 단편영화들이 다루는 사랑은 매우 다양하다. 뱀파이어와의 사랑처럼 상상력이 극대화 된 작품도 있고, 동성애자들의 사랑을 다룬 영화도 있으며, 부녀 사이의 사랑, 신혼의 사랑, 중년의 사랑, 노년의 사랑 등 파리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사연이 펼쳐진다. 유럽의 대도시들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다문화현상과 관련된 작품들도 당연히 여럿 있다.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는 최종 편집판에서 두 번째로 수록된 거린더 차다 Gurinder Chadha 감독의 <센 강변 Quai de Seine>이다. 아랍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히잡 착용에 대한 상반된 시각 및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 법안, 종교의 차이와 관용 등 지금의 유럽사

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에 깔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이며, 그만큼 다문화교육에서의 활용성도 크다.<sup>7)</sup> 다음에서 살펴 볼 <16구>(원제; Loin du 16e)도 직접적으로 다문화현실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다. 내용과 형식은 매우 간결하지만, 한국의 현재 상황과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과 활용성이 많은 영화이다.

<16구>는 월터 살레스 Walter Salles와 다니엘라 토마스 Daniela Thomas의 작품이다. 내용은 무척 간략하다. 영화는 젊은 이민자 여성인 안나가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아기를 보육원에 맡기고 파리 시내로 출근해 다른 집 아이를 돌보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대화도 거의 없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인터폰으로 누구인지 확인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지시사항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예”라고 모두 세 번 대답하는 것이 안나가 하는 대화의 전부이다. 영화의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아직 캄캄한 새벽에 여자가 알람소리에 잠에서 깬다.
- ② 여자가 아이를 안고 황급히 걸어서 보육원으로 간다.
- ③ 침대에 아이를 내려놓고 나오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되돌아가 노래를 불러준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웃는다.
- ④ 달리는 교외선 기차 안에 여자가 서있다. 승객들 중 반 이상이 외국인이다.
- ⑤ 환승을 위해 여자가 역 안에서 서둘러 걷는다.
- ⑥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자가 앉아있다.
- ⑦ 여자가 지하철역사 안을 빠르게 걷고, 장면이 바뀌어 다른 전동차 안에 서있다.
- ⑧ 지하철역사를 뛰다시피 나와 거리를 가로질러 어느 건물 앞으로 간다.
- ⑨ 초인종을 누르고, “안나예요?”라고 묻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한 뒤 문이 열린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7) 영화 <센 강변>을 활용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김연권, 한용택, 앞의 책, pp.198-207 참조.

- ⑩ 계단을 뛰어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 겹옷을 벗는데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전에 일어난 일을 전화해달라고 하고, 저녁에 1시간 늦을 텐데 괜찮을지를 묻는다. 여자는 잠시 주저하지만 “예”라고 대답한다.
- ⑪ 집 안을 바라보는 여자에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여자는 아기 방으로 가서 자신의 아이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를 똑 같이 불러준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웃는다.

사실 이 영화는 깔끔하지만 불친절하며 인색하다. 상황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시킨다. 특별한 사건도 없다. 짧은 대화의 내용과 여자의 행동으로 보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아침을 군더더기 없이 보여줄 뿐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래의 가사가 프랑스어가 아닌 외국어라는 점에서 여자는 외국인 이민자라고 추정되며, 장시간의 이동을 거쳐 파리로 가서 베이비시터의 일을 한다고 파악된다. 여자의 출신 국가, 나이, 결혼 유무, 프랑스에 있게 된 동기 등 아무것도 알려주는 것이 없다. 심지어 안나가 본명인지 아닌지도, 보육원에 맡긴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도, 엄밀히 말하면 확실한 사실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영화의 구성이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4분 50초 정도의 상영시간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자가 이동하는 장면들과 두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다. 여자가 보육원을 나와 도보로 혹은 기차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장면은 1분 15초 정도 되고, 여기에 집에서 보육원까지 가는 장면이나 계단을 올라가 아기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장면까지 합하면 총 1분 35초를 상회한다. 전체 상영시간의 약 35%가 여자의 이동장면에 할애되어 있는 것이다.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은 각각 35초와 50초 정도이고, 이 둘을 합하면 1분 25초이며, 전체 상영시간 대비 30% 정도를 차지한다. 노래를 부르는 장면 전후의, 아기에게 가고 되돌아오는 장면까지 포함한다면, 이 두 에피소드가 전체 이야기의 70% 이상을 점유한다. 이러한 양적인 접근은 영화의 감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갈등요인이 없는 스토리라인에서 유사하거나 반복적인 장면은 영화의 수용을 조건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실

처음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남는 인상은 쫓기듯 계속 시계를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밀치면서 황급히 움직이는 여자의 모습과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의 멜로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여자의 각박한 일상을 대변한다. 이주민인 여자는 파리 시내에서 체법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에 산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기는 보육원에 맡기고 자신은 파리 시내에서 타인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며, 수면도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늘 시간에 쫓기듯 산다. 최근 들어 전형이 되다시피 한, 프랑스 주류 계층이 사는 파리 시내와 이주민들의 거주지역인 교외 지역의 이분법적 해석과 여자의 넉넉하지 않은 옷차림이 이를 뒷받침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는 돌보지 못하고 남의 아이를 돌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도 여자는 아이 돌보는 일에 충실하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동일한 노래를 들려주며 손가락을 움직여 아이들을 달래준다. 아이들은 그녀의 행동에 똑같이 울음을 멈춘다. 자신의 아이와 타인의 아이라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한 이주민 여성의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을 고발한다기보다는 담담히 희망을 노래한다.

<16구>의 서술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특성은 아이 엄마하고의 대화 장면이다. 사실 아이 엄마는 유일하게 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인터폰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에서 말하듯 소리만 들릴 뿐이다. 대화의 내용도 무척 사무적이다. 대화라기 보다는 지시와 질문이며, 질문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지시에 가깝다. 안나는 이에 대해 세 번 모두 “예”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다. 둘 사이에는 의례히 있어야 할 인사도 없고, 형식적으로나마 안부를 묻는 일도 없다. 언어의 친교적 기능이 없는 지시뿐인 대화 그리고 상대방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러한 서술전략은 아이의 엄마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서 인식하게 한다. 아이의 엄마와 안나의 관계는 그래서 사무적일 수밖에 없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 엄마와 엄마, 여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있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둘 사이에는 인간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 교감을 가로막는 념을 수 없는 벽이 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아이의 엄마는 거대한 파리 시내와 동일시된다. 안나에게 있어서 아이의 엄마와 파리는 모두 편안한 정주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파리는 항상 쫓기듯 움직여야 하는 그리고 일을 위해서만 출입이 허용되는 타자의 공간 일 뿐이고, 아이의 엄마는 그런 파리의 일부분이다. 아이 엄마나 파리의 입장에서 보면 안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안나는 이방인일 뿐이다.

## 2) <16구>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학습 목표와 내용

살펴본 바와 같이 단편영화 <16구>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암시를 통해서 생각할 기회를 준다. 다문화교육에서의 활용도 영화의 이러한 서술특성에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다문화현실의 설명보다는 영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5분 정도의 상영시간을 고려했을 때, 시청 후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영화의 서술특성과 주제 그리고 수업환경을 감안했을 때, 학습활동은 토론을 위주로 진행하고, 부족한 것은 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이주노동자가 겪는 이방인으로서의 고민과 고통을 이해한다.
- 비록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고국을 떠났지만 이주노동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 이주노동자의 인권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이해한다.
- 원주민과 이주노동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개인의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본다.

다음은 시청 후 활동의 구체적인 예이다.

- ◇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 ①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로 요약하고, 인상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를 발표하여,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비교해본다.

- ② 영화에서 안나의 이동장면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유추해본다.
- ③ 영화의 내용에 근거하여 안나가 처한 상황과 일상을 말이나 글로 재구성한다.
- ④ 영화에 나오는 대화의 특성을 일상의 대화와 비교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아이 엄마의 모습이 왜 화면에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⑤ 영화의 내용에 근거해, 안나에게 있어서 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 ⑥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각자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발전 활동

- ①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또한 그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자랄 때 그들은 정서적으로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를 생각해본다.
- ② 한국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한국사회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상상해본다.
- ③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시각을 상상해본다.
- ④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와 원주민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본다.
- ⑤ 이주노동자와 원주민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 ⑥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각자 생각해보고 발표한다.

이와 같은 학습활동은 한국의 다문화현실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다. 한국에서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조선족이나 이주민 여성이 주위에 있는지 알아보고, 왜 그녀들이 그 일을 하는지, 만약에 그녀들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라 여겨진다. 한국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가 꼭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인의 태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천국의 가장자리>와 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 1) 시청 전 준비를 위한 영화의 기본정보와 서술구조

<천국의 가장자리>(원제: <Auf der Anderen Seite>)는 독일과 터키의 공동제작 영화이며, 상영시간은 116분이다. 감독은 <미치고 싶을 때>(2004)로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 상을 수상한 터키계 독일인 파티 아킨Fatih Akin이다. 2007년 작인 <천국의 가장자리>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시나리오 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6월 '15세 관람 가'로 개봉되었다. 터키의 이스탄불, 독일의 브레멘과 함부르크를 배경으로, 세 쌍의 부자와 모녀가 등장하는 이 영화에는 세계화, 정체성, 이주, 여행, 세대 간 갈등, 문화 간 갈등, 동성애, 환경오염 등의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코드들이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 죽음, 소외와 소통 등의 철학적 코드도 개입되어 있다. 서사미학의 측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예술성이 증명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천국의 가장자리>의 서술구조는 일면 단순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야기되는 사건의 시간과 서술 시간의 뒤틀림, 장면과 장면 사이의 불연속성, 평범해 보이는 화면 속에 숨겨진 유의미한 요소 등으로 인해 집중력을 요구하는 구성이다.

영화는 크게 세 개의 에피소드로 나뉘며, 각각의 에피소드는 여백에 '에터의 죽음', '로테의 죽음', '다른 편에서'라는 부제가 삽입된 화면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되는 첫째 시퀀스는 한 남자(네자)가 터키의 바이람 축제 기간에 흑해 연안의 주유소

에 들리 주유를 하고, 주유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다시 차에 올라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퀀스는 첫째 에피소드가 끝나는 부분과 셋째 에피소드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병렬적인 에피소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영화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다문화교육의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영화의 구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피소드는 알리와 네жат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브레멘에 사는 은퇴한 택시기사인 터키인 알리는 독신이다. 아들인 네жат은 함부르크에 사는 독문학 교수이다. 알리는 독일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다. 유일한 위안거리는 사창가에 가는 것이다. 아들인 네жат과도 부자관계라는 것을 빼고는,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각각 터키어와 독일어라는 사실이 암시하듯, 대화의 공통주제가 없다. 알리의 모든 대화는 섹스로 향하고, 네жат은 아버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식이다. 알리는 사창가에서 만난 터키인 매춘부 예터에게 동거하자고 권유한다. 터키인들로부터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협박을 당하던 예터는 알리의 권유를 받아들인다. 어느 날 알리가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네жат은 예터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터키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을 위해 몸을 판다는 그리고 얼마 전부터 딸과의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알리는 네жат과 예터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사고로 예터를 죽이게 된다. 예터의 시신은 터키로 옮겨지고, 네жат은 이스탄불에서 예터의 딸인 아이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이스탄불의 독일어 전문서점에 우연히 들르게 되고, 고국인 독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서점 주인으로부터 서점을 인수하기로 결심한다.

‘로테의 죽음’이라는 부제가 붙은 둘째 에피소드는 예터의 딸인 아이텐이 터키에서 겪는 일, 그리고 독일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 로테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다.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첫째 에피소드의 시간적 배경과 부분적으로 중복된다. 네жат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흐름과 아이텐-로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흐름이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 배경과 이야기되는 사건의 다름으로 인해 교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네жат의 이야기에는 알리, 예터가 등장하고, 아이텐-로테의 이야기에는 이 두

사람 외에 로테의 어머니 수잔네가 등장한다. 이 두 개의 흐름은 둘째 에피소드 후반에서 로테가 네자의 서점에 들렀다가 네자의 집에 세를 듣게 되면서 서로 만나게 된다. 둘째 에피소드의 첫 시퀀스는 이스탄불에서의 반정부집회 장면으로 시작된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혼돈의 와중에 경찰의 총을 쏘게 된 여자(아이텐)은 어느 건물 옥상에 총을 숨기고 경찰을 피해 도망간다. 그러나 동료들이 모두 잡혀가는 것을 보고는, 브레멘의 신발가게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는 엄마를 찾아 독일로 간다. 함부르크에서 터키인 반정부 단체의 행태에 실망한 아이텐은 우연히 대학생인 로테와 만나게 되어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된다. 둘의 관계는 우정으로 출발하지만, 동성애의 감정으로 발전한다. 로테의 엄마 수잔네는 아이텐의 존재를 달갑지 않게 여기며, 터키정부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녀의 투쟁과 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텐은 수잔네와 설전을 벌인 뒤 로테의 집을 나온다. 그녀는 로테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다가 경찰에 체포된다. 아이텐은 망명자 보호소에 머물게 되지만 결국 법원의 결정에 의해 터키로 송환된다. 터키에서 아이텐은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수감생활을 하며, 로테는 엄마와 싸우고 아이텐을 찾아 이스탄불로 간다. 우연히 들른 서점에서 만난 네자의 집에 거처를 정한 아이텐은 많은 노력 끝에 아이텐을 면회한다. 로테는 아이텐의 부탁을 받고 그녀가 숨긴 총을 찾게 되나, 거리에서 소년들에게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고, 총이 든 가방을 되찾으려다 소년이 쏜 총에 맞아 숨진다.

셋째 에피소드의 첫 장면의 배경은 이스탄불 공항이다. 터키로 추방된 알리의 모습과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터키에 온 수잔네의 모습이 보인다. 이 시퀀스는 평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수잔네는 네자와 만나게 되어 딸이 살던 방에 머물면서, 아이텐을 만나 화해한다. 알리는 고향으로 간다. 독일에서 아들이 준 책<sup>8)</sup>을 읽는 장면에서 네자와의 화해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네자와 수잔네는 바이람 축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8) 이 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숙경, 「문화강의를 위한 모델: 다문화 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킨의 극영화 <천국의 가장자리>」, 『카프카 연구』 제21집, 2009, pp.193-194 참조.

유사성에 대해 말하고, 네갓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새삼 깨닫는다. 네갓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고향으로 간다. 주유소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첫 시퀀스가 반복되면서, 서술의 현재로 돌아온다. 네갓이 해변에서 낚시를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

<천국의 가장자리>가 다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이유는 영화에서 독일에 사는 터키인의 모습이 그려졌다는, 혹은 터키와 독일이 교차적으로 배경으로 사용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 아니다. 영화의 주제는 작게는 세대 간의 갈등 크게는 문화 간의 갈등, 근본적으로는 모든 타자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해이며, 다문화교육에서의 활용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화의 주제에 대한 접근, 특히 <천국의 가장자리>처럼 영상 미학적으로 완성되었고 다양한 코드를 함유하고 있는 영화의 주제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라는 전제를 염두에 둘 때, 이 영화는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소통과 화해에 이르는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분석이 용이하고, 등장인물들의 관계 그리고 각각의 인물이 보여주는 변화의 과정이 영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주제의 윤곽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초반에 작중인물들은 소외된 상태로 그려진다. 이들 대부분은 늘 혼자이다. 영화에서 이들이 친구와 지내는 장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동료들과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텐조차도 함부르크의 터키인 반정부조직 사람들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며, 교도소의 동료들도 사실은 경계와 의심의 대상일 뿐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모와 자식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예터의 말이나, 네갓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일화에서 보이듯 기저에는 희생과 사랑이 감정이 있지만,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실에서는 늘 단절과 충돌을 느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알리와 네갓은 각각 터키어와 독일어로 말하고 그들의 관심사인 섹스와 책은 접점을 모른다. 예터는 아이텐과의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고, 아이텐은 엄마의 직업을 알지 못한다. 로테와 수잔네는 정치적 망명자인 아이텐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생활방식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영화의 작중인물들은 자신이 사는 일상 속에서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는 의식과 소외의 감정은 정체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관습과 관성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지만, 자신의 현재 위치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황은 그러나 영화가 진행되면서 변화한다. 기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계기는 예터와 로테의 죽음이다. 예터의 죽음은 네갓이 독문학 교수직을 버리고 이스탄불에서 독일어 서점을 운영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며, 로테의 죽음과 맞물려 아버지와 의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 로테의 죽음은 수잔네가 독일 중산층의 보수적인 시각과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탄불로 가게 만들며, 그 동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공통점도 없었던 터키인 아이텐과의 화해로 이어진다. 예터와 로터의 죽음은 우발적이며, 새로운 만남은 우연이다. 그렇다면 화해와 소통이 가능하려면 늘 우연과 우발적인 사고를 기다려야 하는가? 영화의 서술구조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영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장면은 작중인물들이 이동하는 장면이다. 기차로, 버스로, 승용차로, 비행기로, 배로, 때로는 걸어서 작중인물들은 이동하며, 이동하는 씬이 없을 경우 공항과 역의 장면이 이를 대신한다. 예터와 아이텐의 관이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고 떠나는 장면에서 보이듯, 작중인물들은 죽어서도 이동한다. 이들이 이동하는 씬에서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초에서 수십 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 환기시킨다. 네갓이 탄 기차에서 목격지 역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오는 장면처럼 가끔은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이동장면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능이 본질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고 보면 영화 자체 또한 네갓이 운전해서 이동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이 장면은 나중에 반복되기도 한다. 영화의 각 시퀀스들이 대부분 이동장면으로 시작되거나 이동장면을 포함하고 있고, 영화 자체도 이동장면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장면들이 빈번하게 삽입된 사실은 작중인물들이 상대방을 향해 또는 무엇인가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동은 단순히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외를 벗어나서 화해와 소통에 이르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와

행위의 기표이다. 영화 전편을 감싸는 오프닝 시퀀스도 결국 네잖이 아버지와 의 화해를 위하여 이동하는 장면이고, 이것이 영화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관습과 일상 속에서 관성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연과 우발은 이런 일상을 깨트리고 타자에게 다가가게 하는 촉발제이다. 상대방을 향하여, 또는 새로운 문화를 향해 이동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타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며, 그런 점에서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추구와 연관되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탄생의 계기가 된다. 네잖은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서점 주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동시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며, 섹스가 유일한 소일거리였던 알리는 귀향해서 낚시를 하게 되고, 수잔네는 보수적인 중산층의 시각을 버리고 아이텐과 화해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텐은 정치적 신념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신뢰와 애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잔네와 화해한다. 이러한 깨달음 또는 재탄생은 늘 장소의 이동을,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틀을 박차고 나와 타인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다.

화해와 소통을 향한 작중인물들의 변화가 모두에게 동일한 정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의 초반과 후반을 비교했을 때 가장 소극적인 인물은 알리이고, 가장 적극적인 변화의 주인공은 수잔네이다. 알리는 네잖이 준 책을 읽지만 스스로 다가가지는 못한다. 그의 터키행이 추방이라는 강제적 행위 때문이라는 사실이 암시하듯, 가부장적인 그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만, 적극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터키의 모든 문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수잔네는 딸의 죽음 뒤 적극적으로 아이텐에게 다가간다. 수잔네에게 있어 아이텐은 딸을 대신 하지만, 이 둘의 화해와 소통은 세대 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수잔네는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에 속하며, 그런 점에서 그녀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적이며, 주류계층이고,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이텐은 이슬람교인이고, 진보적이며, 비주류계층이고, 가지지 못한 자이다. 그녀와 아이텐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의 소통과 화해를 넘어서서, 독일과 터키, 기독교와 이슬람교, 보수적 세계관과 진보적 세계관, 주류와 주변, 부자와 빈자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무너트리는, 그리고 인종, 언어, 문

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타자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소통과 화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간의 소통과 이질적인 문화들의 공존이라는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네갓이 인수한 서점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독일에 사는 터키인 독문학 교수 혹은 터키의 독일어 전문서점 주인이라는 그의 직업이 의미하듯, 네갓은 터키와 독일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그의 서점에는 터키 국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꽂혀져 있다. 서적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의 서점은 양국 문화교류의 시발점의 장소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네갓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대화할 수 곳이기도 하며, 게시판을 설치한 정보교류의 장소이기도 하며, 소통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소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여기서 네갓이 로태와 만나고, 네갓과 수잔네가 대화를 나누며, 수잔네와 아이텐이 화해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점은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우연성의 발발 빈도를 높이는 체계화된 공간이고,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 공간인 것이다.

## 2) <천국의 가장자리>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학습 목표와 내용

<천국의 가장자리>는 ‘15세 이상 관람 가’로 개봉되었지만, 서술양식과 내용 때문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에 적합한 영화이다.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려면, 서술매체로서 영화가 갖는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조금은 광범위한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영화는 발췌된 일부분 또는 편집되어 축약된 형태의 감상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더라도 전편 시청을 권장한다. 영화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는 전편 시청 후 재구성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천국의 가장자리>를 활용한 고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학습 목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 타자와 내가 항상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이 누구이든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자와는 늘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이러한 다름의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 일상, 관습에의 안주가 타자와의 화해와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 문화, 인종, 국적, 계층, 성별, 언어 등의 차이는 그 어느 것도 소통하고 공존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이해한다.

영화를 시청 한 후 또는 시퀀스별로 시청하는 도중에 영화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이다.

- ① 영화에 나오는 각각의 작중인물들의 직업, 국적, 특징 등을 한두 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 ② 작중인물들의 관계를 도식화한다. 알리-네жат, 예터-아이텐, 로테-수잔네 세 쌍의 공통점을 파악하며, 알리-예터, 아이텐-로테, 네жат-로테, 네жат-수잔네의 만남의 과정과 의미를 생각해본다.
- ③ 예터의 죽음이 유발하는 사건의 전개를 파악하고, 그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 ④ 로테의 죽음이 유발하는 사건의 전개를 파악하고, 그녀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 ⑤ 알리, 네жат, 아이텐, 수잔네에게 있어 영화 초반과 후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리한다. 아울러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에 대한 그들의 반응과 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 ⑥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를 중심으로 네жат과 알리의 관계, 그리고 로테의 죽음 이후 이스탄불에서 재회하는 수잔네와 아이텐의 관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 ⑦ 영화의 첫 시퀀스가 반복되는 이유를 영화의 주제와 관련해서 추론해본다.
- ⑧ 빈번하게 나오는 이동장면의 의미를 추론해본다.
- ⑨ 네갓의 직업 그리고 네갓의 서점의 의미를 터키와 독일의 관계와 연관 시켜서 생각해본다.

<천국의 가장자리>는 독일의 다문화현실, 터키와 독일의 관계, (바이람 같은) 이슬람 전통 문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가 갖는 문제점,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화학습이 가능하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사전 조사와 자료 준비를 통해서 혹은 과제부여를 통해서 감수성, 인권, 국제관계 이해에 대한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영화, 특히 일반 상업영화를 활용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쉽게 시도될 수 있지만, 사실 학습효과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친숙한 서사양식이라는 점에서 영화는 학습자의 호응을 얻기가 쉽다. 하지만 상업영화는 특정한 학습목표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기에, 영화의 선택, 시청 전 활동, 시청방식, 시청 후 활동을 위한 세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무조건 영화를 시청하게 하고 단순하게 감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수업방식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준거할 만한 틀이 많지 않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서사매체로서 영화가 갖는 특성, 그리고 실천적이어야 하고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다문화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경험의 축적이 많지 않기에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글에서 분석, 제시된 세 편의 영화, <키리쿠, 키리쿠>, <사랑해, 파리>

중 <16구>, <천국의 가장자리>는 현재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당면한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영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준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반 상업영화가 교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격의 작품을 선택한 결과이다. <키리쿠, 키리쿠>는 프랑스의 창작 애니메이션이고, <16구>는 움니버스 영화에 수록된 프랑스 단편영화이며, <천국의 가장자리>는 독일의 장편 극영화이다. 이 영화들을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우선 영화시청등급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영화의 이해에 있어서의 난이도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글에서 제시한 학습목표와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개 학년의 학생들을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생각일 수 있으며, <키리쿠, 키리쿠>를 활용한 다문화교육도 일부 학년에서만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세 편의 영화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상업영화의 전부는 아니다. 기존에 개봉되었던 영화뿐 아니라 앞으로 개봉되는 수많은 영화에서도 다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를 통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좀 더 많은 영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가 개별적인 수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자, 학습목표, 학습 내용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교사들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자료의 체계화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 ❖ 참 고 문 헌

- 미셸 오슬로, <키리쿠, 키리쿠>, DVD, 태원엔터테인먼트, 2006.
- 올리비에 아사야스 외, <사랑해, 파리>, DVD, 프리지엠, 2009.
- 파티 아킨, <천국의 가장자리>, DVD, 대경, 2010.
- 구건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통권 90호, 2003, pp.29-53.
- 구은숙, 「다인종 다문화시대의 문화연구: <미국문화과 문화> 수업을 중심으로」, 『국제문화연구』,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제18권, 2000, pp.75-81.
- 김보림, 「역사수업에서 영화를 통한 일본사-영화 카게무사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7, pp.1-16.
- 김연권, 한용택 「영상매체를 통한 다문화 수업」, 최충옥 외 『다문화교육의 이해』, 양서원, 2010, pp.177-210.
- 김은미, 「영화 속 타문화 이야기, 언어를 뛰어넘는 영상, 그 속에서 보여지는 문화 차이」, 『국제이해교육』, 한국유네스코, 통권 13호, pp.26-34.
- 김정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영어 수업」, 이흥수(편), 『영어평가 및 멀티미디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1998, pp.219-253.
- 노시훈, 「영화를 통한 프랑스 문학-문화 교육」, 『프랑스학연구』 제33집, 2005, pp.351-371.
- 박현준, Joseph E. Chamoux, 김상준, 조영호, 「영화와 경영교육 - 영화를 통한 협상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03, pp.568-595.
- 서성식, 「영상 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장점과 한계」, 『STEM Journal』, 영상영어교육학회, 제8권 2호, 2007, pp.153-166.
- 서연주, 「한국 문화에 나타난 다문화 인식 양상 고찰, 인권영화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47집, 2009, pp.213-234.
- 이경순, 「다른 세계들, 다른 텍스트들: 영어권 문화강의에서의 영화의 활용」, 『문학과 영상』 가을겨울호, 2002, pp.61-92.
-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0권 2호, pp.53-76.
- 이숙경, 「문화강의를 위한 모델: 다문화 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아킨의 극영화 <천국의 가장자리>」, 『카프카 연구』 제21집, 2009, pp.177-200.
- 이종원, 「기독교 교양과목에서의 영화 활용에 대한 연구」, 『대학과 선교』 제5집, 2008, pp.251-276.
- 정영근, 「디지털문화시대의 영화와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제6권 제2호, 2003, pp.205-224.

- 조현일, 「읽기 텍스트로서의 영화와 영화 읽기 교육」, 『독서연구』 제18호, 2007, pp.255-285.
- 한관중, 「영화를 활용한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수업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2006, pp.147-166.
- 홍기천, 남은아, 「영화자료를 활용한 초등학교 5학년의 실제적인 교과수업 방안」,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8호, 2006, pp.68-77.

❖ ABSTRACT

Some French and German Movie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t Schools

HAN, Yong-tae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some French and German movies to teaching of multi-cultur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ree different films are selected. <Kirikou and the wild Beasts>(2005), a French animation film directed by Bénédicte Galup and Michel Ocelot, is appropriate for the education of understanding cultural relativity and improv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in elementary school. <Loin du 16e> is a French short film directed by Walter Salles and Daniela Thomaso and included in omnibus style film <Paris, je t'aime>(2006). This short film relating a story of an immigrated woman who leaves her baby in a crèche and travels through Paris to work for a bourgeois mother can be used for developing a bond of sympathy between natives and immigrants. It is recommended for the class of junior high school. Finally <The Edge of heaven>(2007), a German film directed by Fatih Akin, provide a learning model for the education of multi-culture in high school classrooms. The cinematographic aesthetic of this film is focused on a process of reconciliation with others over the cultural, racial, national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Analyzing the structure of the film and being guided by teachers the students can understand better in improving abilities to understand others.

---

Key Words

다문화교육, 영화, 키리쿠, 천국의 가장자리, 사랑해 파리

multicultural education, cinema, Kirikou, Edge of heaven, Paris je t'aime

논문접수일: 2010. 2. 27.

심사완료일: 2010. 4. 10.

232 비교문화연구 제19집 (2010. 4.)

게재확정일: 2010. 4. 15.